

“인구감소시대 적극적 대응 필요”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과제’ 주제 JJRI 정책브리프 제2호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8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JJRI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1년 이후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자연감소, 순유출 증가, 출산과 혼인 감소, 고령화의 심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결혼 기피 경향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전주시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 설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개편·확충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제시했다.

전주시의 인구는 2021년 기준 65만 명 선을 유지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2023년 기준 64만2,727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증가를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기준 마이너스 1.35%까지 감소했다. 또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했으며, 전입·전출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기점으로 순유출로 전환됐다.

전주시의 인구구조는 1992년 기준으로 10-19세 유소년인구와 20-24세의 청년인구의 비중이 큰 피라미드 형태를 보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 40-60대 인구의 비중이 큰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화했다.

전주시의 합계출생율은 2023년 기준 0.69명을 기록해 전국(0.72명), 전북특별자치도(0.78명)에 비해 그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지수는 2023년 기준 143.6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 월세보조, 그리고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2022년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 중 26.2%가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거나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

전주시의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구조 측면

에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보험·연금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기반산업이 변동하는 등 지역경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는 2021년 5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육아·청년·고령인구 정책과 사업을 실시했다. 반면, 전주시 인구구조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3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연구원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계획·시행된 분야별 정책 및 사업들과의 긴밀한 상호 연계 관계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

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육성 등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입 촉진 방안이 당해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 양육지원 다양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 신혼부부 지원, 중장년층의 직업전환·창업지원,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와 연령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자치법규 개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개편 및 확충, 청년인구 재정의 방안 논의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을 주장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 현 시점에서 전주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문제는 출산과 인구가동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차되는 종합문제라는 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아시아 태평양 예술축제 전주 경연

아시아태평양페스티벌 주최... 10개국 80팀 참가 성료

문화전통의 도시 전주에서 지난 5일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싱가포르 소재) 주최로 2024년 경연대회가 국립문화유산원(한옥마을 소재)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8회째 맞이한 이번 경연대회는 음악부문, 댄스부문, 총 80팀, 10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튀르키예(터키), 브루나이, 나이제르, 한국)이 참가했다. 페스티벌 참가자와 가족 스태프 인원은 250명으로 대회가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음악 부문 1등은 베트남 국적의 응우옌 프엉 린(Nguyen Phuong Linh)이 수상했다. 댄스부문 1등은 전주예고 박가은(현대무용 Eye Me, 강남선 무용아카데미 지도) 학생이 차지했다. 그리고 댄스부문 3위에 전북사대부 고의 강지원, 정은희, 유연재(소고



춤, 에미아트컴퍼니 지도)학생들이 수상했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파날레로 한국전통 강강술래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예술축제에 참여한 각국 참여자들은 전주 대표 관광지 관광(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등) 및 체험(한복체험, 부채만들기 체험)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시아 태평양 예술축제 조직위는 2025년 제9회 경연대회를 다시 한번 전주에서 개최하겠다는 희망의 의사를 표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상반기 343명에 1억9500만원 지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삼)이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다양한 개인·단체 기부자들의 손길로 취약계층 343명을 지원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전주형SOS긴급지원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 △위기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주지역 취약계층 343명에게 총 1억 9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이 상반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해 각종 나눔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지역의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 지원 규모를 연 70만 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기록됐다.

또한 올해 신규 도입된 저장강박가구 대상 청소년·방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목표했던 건수를 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여기에 재단은 위기고립가구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노숙인쉼터 이용자까지 확대해 여름 폭염에 대비한 ‘소의 없는 건강 동행’을 실현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 성황리 개최

전주시, 89팀 독립출판인 판매·전시·강연 진행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두 번째 독립출판 북페어인 ‘2024 전주책페’가 독립출판의 저력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남부시장 내 문화공공장 작당 일원에서 펼쳐진 ‘2024 전주책페: 독립출판 북페어’가 전국의 창작자와 독립출판사, 독립서점, 시민, 여행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24 전주책페’는 전국의 창작자, 독립출판사, 독립서점 등 종이책을 1종 이상 제작한 독립출판인들이 모여 직접 만든 신작을 전시·판매하는 책 박람회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4팀 증가한 총 89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대표 도서 및 신작 전시·판매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먼저 북페어 첫날인 지난 6일 오전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두 번째 독립출판 북페어인 ‘2024 전주책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에는 문화공공장 작당 마당에서 김인태 전주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자 및 시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책페’

의 의미와 방향성이 담긴 책페 선언문을 낭독하고, 연극인 하형래 씨의 전주 사투리 진행으로 책페 소개편을 함께 제작했다.

이어 오후에는 ‘책페 조신선 이야기’를 쓴 국내 유일 책페 연구자 이민

희 강연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책페 열전, 그들이 꿈꾸던 책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조선시대 책페의 활약상과 서양의 책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독립출판으로 요모조모 살아남기’를 주제로 책에서 굶주리지 않고 군부 제작기를 다룬 7년 차 독립출판인 ‘누구나’ 작가의 강연도 이어졌다.

또한 둘째 날인 지난 7일에는 ‘사람과 혁명 - 여기는 군산’을 주제로 군산의 독립출판사 ‘프로파간다’의 김광철 대표가 지역 출판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가올 제1회 군산북페어의 비전에 관한 강연에 나섰으며, ‘나만의 색깔로 책방을 칠합니다’를 주제로 소규모 자영업 매장으로서의 책방 성장기를 담은 서을 ‘스페인책방’의 예바·다미안 운영자의 강연이 이어졌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의 미래세대 독립출판인을 발굴하고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열린 이번 독립출판 북페어가 독립출판을 꿈꾸는 예비 출판인들에게 좋은 자극과 영감을 주는 축제가 됐길 바란다”면서 “잘된 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북페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전주시 완산구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약 4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기술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9일(금)까지 완산구청 청소위생과(063-220-5395)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